

「근대路의 여행」-대구, 살아있는 역사를 만나다

문학기행 모집안내

찬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가을문학기행을 함께 떠날 참가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2022. 9. 21. (수) 07:50 ~ 18:00

○ 장 소 : 대구 일원 (향촌문화관, 북성로, 근대문화골목 등)

○ 대 상 : 독서동아리회원, 지역주민 **20명** 선착순 접수

* 독서동아리(놀이독서회, 락온제나, 그림책이좋아서, 이야기보쌈) 회원 우선접수

○ 참 가 비 : 무료 * 점심은 참가자 부담

○ 접수기간 : 9. 1.(목) 09:00 ~ 9. 13.(화) 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문헌정보동 1층 안내데스크)

○ 유의사항

- 출발 전 발열 체크, 손소독 필수
- 차량 착석시 거리두기 적용
- 차량 이동시, 실내 관람시 마스크 필수 착용
- 코로나 확진자 및 접촉자 참석 불가
- 코로나 의심증상(체온 37.5 ° C 이상, 호흡기증상) 발현 시 참석 불가

○ 세부일정

소요시간		내 용	비 고
07:50~08:00	10'	참가자 인원 점검 및 안전교육	
08:00~10:40	160'	교육원 → 향촌문화관	버스이동
10:40~11:40	60'	향촌문화관 관람	- 문화관 직원 해설 - 입장료 1,000원
11:40~11:50	10'	향촌문화관 → 북성로	버스이동
11:50~12:50	60'	점심식사 및 북성로 탐방	작가의 집 탐방
12:50~13:00	10'	북성로 → 근대문화골목	버스이동
13:00~15:00	120'	근대문화골목 투어	- 문화해설사 설명 * 제2코스
15:00~17:40	160'	근대문화골목 → 교육원	버스이동

※ 위 내용은 당일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 남부평생교육원 문헌정보부 ☎041-730-7726)

*제2코스: 동산청라연덕 - 3·1만세운동길 - 계산성당 - 이상화고택 - 서상돈 고택 - 교남YMCA - 구 제일교회
- 약령시 한의약 박물관 - 마당 깊은 집 - 진골목 - 공감 게스트 하우스 - 화교협회

[붙임2] 참가 신청서

2022년 문학기행 「근대路의 여행」
대구, 살아있는 역사를 만나다

모집신청서

		접수번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여행자보험 가입 시 필요)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 문학기행 운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2022년 9월~사업 종료 시까지 [기타사항]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문학기행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 여행자보험사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 문학기행 참가자 여행자보험가입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2022년 9월~사업 종료 시까지 [기타사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문학기행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 동의 ☐		신청자 동의 ☐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문학기행에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2년 9월 일

신청자: (서명)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장 귀하



[향촌문화관]

- 역사를 품은 공간, 향촌문화관

이 자리는 1912년 대구 최초의 일반은행인 선남상업은행이 있었던 곳이다. 그 뒤 한국상업은행 대구지점으로 영업을 해오다가, 2014년 대구의 원 도심을 소중히 지켜 나가기 위해 전시문화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곳

향촌동은 경상감영의 화약고가 있었던 곳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지금의 무궁화백화점 자리에 중앙염매소가 있었는데, 오늘날 중앙시장의 기원이 된 곳이다. 대구역이 들어서고 읍성이 헐리면서 도심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그와 함께 6·25 전쟁과 근대화의 과정을 증언해 주는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 문인들의 정신적 고향

향촌동은 '문인들의 정신적 고향'이다. 피란 내려온 문인들이 다방을 본거지로 삼아 원고를 썼고, 어쩌다 원고료라도 받으면 이곳 막걸리집으로 몰려왔다. 또한 인접한 북성로에서 '경북문학협회'가 창립되었고, 향토시인 백기만이 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 예술인들의 거리

향촌동은 '예술인들의 거리'였다. 피란 내려온 문화 예술인들이 다방이나 음악감상실에서 피란살이의 고단한 심사를 달래며 문화와 예술에 대한 열정을 쏟았던 곳이다. 음악가 김동진, 나운영, 권태호, 연예인 신상옥, 장민호, 최은희, 화가 권옥연, 김환기, 이중섭 같은 이들이 술한 일화를 남겼다.

- 대구 최고의 번화가

향촌동은 1970년대까지 대구의 중심 이른바 ' 시내'로 불리던 곳으로, 대구 최고의 상가지역이었다. 또한 이름난 다방, 술집, 주부센터, 음악감상실 같은 명소들이 자리 잡고 있어 대구에서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리던 번화가였다.



- 추억의 거리

향촌동은 광복 이후 근대 대구의 중심 상업지역으로 발전하였고, 6·25전쟁 때 고단한 피란살이의 애환이 깃든 곳이다. 그때 그 시절 골목마다 자리 잡은 다방과 술집에 얹히고설킨 인연과 추억이 살아 숨 쉬는 도심의 아름다운 공간이기도 하다.



<3·1운동길>



<계산성당>



<이상화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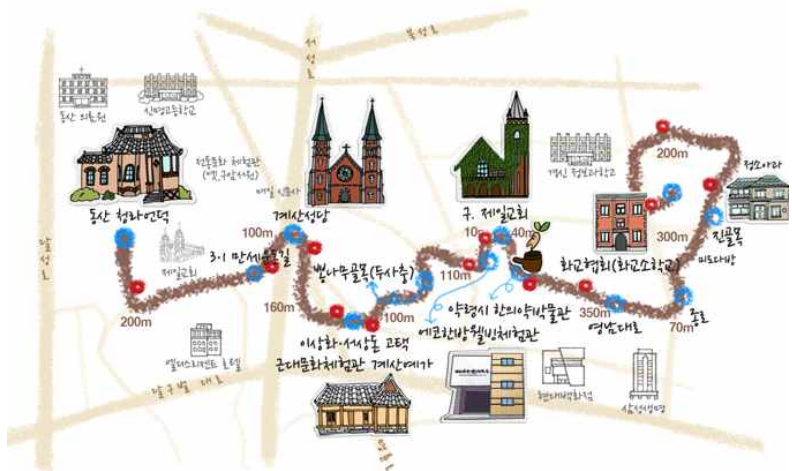


<마당 깊은 집>

[근대문화골목 투어]

- 제2코스

: 동산청라언덕 - 3·1만세운동길 - 계산성당 - 이상화고택 - 서상돈고택 - 교남YMCA - 구 제일교회 - 약령시 한의약 박물관 - 마당 깊은 집 - 진골목 - 공감 게스트 하우스 - 화교협회



<코스안내도>

- 이 길은 근대문화의 발자취를 주제로 한 길이다.

1.62km의 비교적 짧은 코스이지만 볼거리가 많아 다 돌아보려면 2시간 정도 걸리며, 골목투어를 전국 유명 관광지로 만든 가장 인기 있는 핵심코스이다.

동산 청라언덕, 선교사주택, 만세운동길, 계산성당, 제일교회, 민족시인 이상화와 국채보상운동을 주창한 서상돈의 고택, 근대문화체험관인 계산예가, 조선에 귀화한 중국인 두사충의 뽕나무 골목, 4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조선의 과거길 영남대로,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옛 대구의 변화과 종로, 화교소학교, 사투리로 길다를 질다로 표현된 진골목이 이어진다.